

땀이 일군 '박항서 매직'...운으로 2년 승승장구 할 순 없다

베트남 U-22 대표팀, 60년 만에 동남아시아게임 우승

2022카타르월드컵 예선도 현재 3승 2무 무패 '호성적'

지난해 12월, 흥명보 자선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은 "2018년은 정말 기적 같은 승리와 행운을 가져다 준 시간"이라며 한해를 되돌아봤다.

그로부터 1년 전인 2017년 말 베트남 축구협회와 계약을 체결, 베트남 A팀과 U-23대표팀의 지휘봉을 동시에 잡았던 박 감독은 출전하는 대회마다 인상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부임 무렵의 미심쩍은 시선을 깨끗하게 씻어냈다.

박항서의 베트남은 2018년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시작으로 그해 여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베트남 축구의 숙원이던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차지, 박 감독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위나 빛나는 1년을 보냈기 때문에, 다가오는 2019년은 기대와 함께 걱정도 따랐던 게 사실이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에, 박 감독을 아끼는 지인들은 더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기우였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2 축구대표팀이 지난 10일 오후(한국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리자이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와의 '2019 동남아시아(SEA)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베트남은 60년 만에 이 대회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이날 박 감독은 후반 32분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다 퇴장을 당해 잔여 시간을 관중석에서 지켜봤다. 사실 3-0까지 앞서고 있는 팀의 감독이 취하는 제스처치고는 과했다.

경기 후 그 행동에 대한 박 감독의 공식 입장 표명은 '사과'였으나 어쩌면 계산된 액션일 수도 있다. 선수들이 마음속으로 먼저 삼패인을 터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라인 밖에서 흥분과 긴장을 멈추지 않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그냥 얻어지는 열매는 없다.

2019년 1월,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가장 큰 대회인 아시안컵에서 8강까지 진출했다. 당시 8강 면면이 한국, 일본, 이란, 호주, 카타르, UAE, 중국이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구 강국들 사이 베트남이 있었다. 메이저대회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베트남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도 호성적을 내고 있다.

UAE를 비롯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함께 G조에 속한 베트남은 11일 현재 3승 2무 무

패 승점 11점으로 조 선두에 올라 마무리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땀이 만들고 있는 박항서 매직이다. 운으로 2년 내내 승승장구 할 수는 없다.



뉴스1

뉴스1

'문성민 제외' 남자배구, 올림픽 아시아예선 엔트리 확정

오는 22일 선수촌 입촌해 내달 5일 중국 출국



2020년 도쿄올림픽 아시아예선에 출전할 한국 배구 남자 대표팀 엔트리가 확정됐다.

대한배구협회는 11일 대표팀 엔트리 14명을 발표했다. 문성민(현대캐피탈)이 부상 여파로 제외된 가운데 V-리그에서 활약 중인 최고의 선수들이 올림픽 본선 티켓 획득을 위해 싸우게 됐다.

먼저 정지석, 곽승석(이상 대한항공), 나경복(우리카드), 전광인(현대캐피탈)이 레프트 자원으로 선발돼 한국의 공수를 책임진다. 올 시즌 소속팀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다.

센터로는 신영석, 최민호(이상 현대캐피탈), 김재휘(상무), 김규민(대한항공)이 이름을 올렸다. 박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예선 최종엔트리

- △레프트 = 정지석, 곽승석(이상 대한항공), 나경복(우리카드), 전광인(현대캐피탈)
- △센터 = 신영석, 최민호(이상 현대캐피탈), 김재휘(상무), 김규민(대한항공)
- △라이트 = 박철우(삼성화재), 허수봉(상무)
- △세터 = 한선수(대한항공), 황택의(KB손해보험)
- △리베로 = 정민수(KB손해보험), 이상욱(우리카드)

철우(삼성화재), 허수봉(상무)는 라이트로 승선했다.

공격수들에게 볼을 배급할 세터는 2명이 뽑혔다. 한선수(대한항공), 황택의(KB손해보험)가 그 주인공. 정민수(KB손해보험)와 이상욱(우리카드)은 수비 전문 선수인 리베로로서 태극마크를 단다.

대표팀 선수들은 오는 22일 인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해 훈련을 시작한다. 1월5일에는 아시아예선이 펼쳐지는 중국으로 출국한다.

야구 양현종·축구 김보경, 동아스포츠대상 '올해의 선수'

류현진은 특별상 수상

양현종(KIA 타이거즈)이 프로 야구 선수들이 직접 뽑은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

양현종은 1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2019 동아스포츠대상에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올해의 선수에 뽑혔다.

프로야구 전체 투표인단 5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양현종은 1위 표(5점) 25장, 2위 표(3점) 9장, 3위 표(1점) 7장 등 총 159점으로 양의지(NC·128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동아스포츠대상은 스포츠동아·동아일보·채널A·CMS(센트럴미디어서비스)가 공동 주최하며 5대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직접 투표로 올해의 선수를 뽑는다.

양현종은 올해 29경기에 등판해 16승 8패를 거두고 평균자책점 2.29를 기록, 이 부문 전체 1위에 올랐다.

양현종은 "올 시즌 프로야구가 작년보다 흥행에는 다소 실패했지

만 야구 대표선수로서 내년에도 열심히 뛰어 많은 팬들이 그라운드를 찾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각오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류현진(32)은 특별상의 주인공이 됐다. 2013년 LA 다저스에서 바리케에 데뷔한 류현진은 올해 29경기에서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하며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평균자책점 메이저리그 전체 1위로 시즌을 마쳤고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득표에서도 2위에 오르는 쾌거까지 이뤘다.

올 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얻은 류현진은 거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와 함께 새 계약을 물색 중이다.

류현진은 "프로스포츠 선수들 앞에서 이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라며 "내년에 더 잘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축구에서는 김보경(울산 현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구단별 4명씩 총 4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위 표 27장, 2위 표 13장, 3위 표 3장으로 총 177점을 받



았다. 2위는 137점을 받은 문성민(전북 현대)이었다.

김보경은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출전으로 이날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영상으로 수상 소감을 전한 그는 "동료 선수들 투표로 이 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다. 대표팀 소집으로 영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게 됐다"며 "오늘도 대표팀 경기가 있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남자프로농구는 총 137점을 기록한 이정현(전주 KCC)이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총 40명의 투표인단 중 25명이 이정현에게 1위표를 줬다. 2위는 같은 팀 이대성으로 52점을 기록했다.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